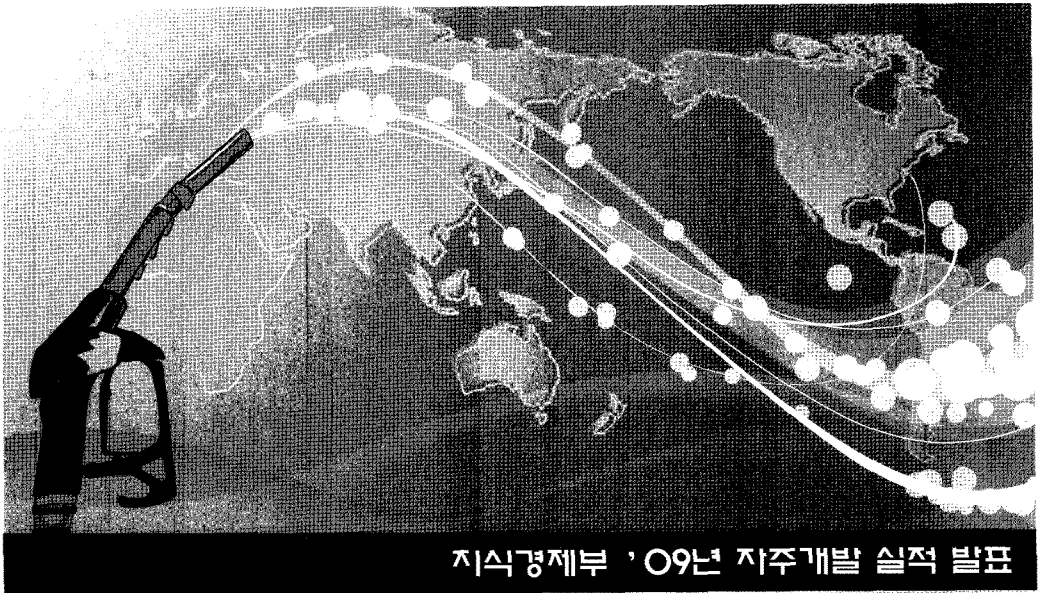


'09년 원유·가스 자주개발률 9% 기록

해외유전개발투자는 전년대비 32%증가한 51.8억불로 증가



■(자주개발률 9%) '09년 국내기업이 생산한 원유·가스 일일 생산량은 전년대비 51% 증가한 260천b/d로 자주개발률 9% 기록했다.

- 캐나다 Harvest Energy사 인수 등 생산광구 매입
- 베트남 15-1광구 증산, 예멘 마리브 가스전 생산개시

* 자주개발률 추이 : ('06) 3.2 → ('07) 4.2 → ('08) 5.7 → ('09) 9.0

■(해외유전개발 투자 51.8억불) '09년 금융위기로 인한 조달 여건악화에도 불구하고 생산광구 매입에 힘입어 해외유전개발 투자는 전년대비 32% 증가한 51.8억불로 증가했다.

■(유전개발사업 참여) 정상급 외교 등 적극적인 에너지·자원 협력을 통해 '09년 30개 신규 사업에 참여하여 총 37개국 169개 사업으로 확대됐다.

1. '09년 원유·가스 자주개발률 9% 기록

- '09년 생산광구 매입 및 기존 생산 광구의 증산 등에 힘입어 '08년 대비 3.3%p 증가한 9%를 기록하여 당초 목표(7.4%) 초과달성

(단위: 천b/d)

구분	'07	'08년	'09년	
			목표	실적
일일 원유·가스 수입량(A)	2,971	3,013	3,029	2,891
일일 자주 개발 물량(B)	125	172	224	260
자주개발률(B/A)	4.2	5.7	7.4	9

○ '09년 자주개발률 상승 요인 (88천b/d 추가 확보 내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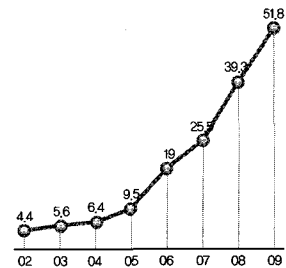
- 캐나다 Harvest Energy사, 페루 Savia Peru, 미국 Sterling Energy사, 카자흐스탄 Sumbe사 인수와 예멘 마리브 가스전 Train 1 생산개시 등으로 88천b/d 추가 확보(2.9%p↑)
- 일일 도입량이 전년대비 122천b/d 감소한 2,891천b/d를 기록하여 자주개발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(0.4%p↑)

- 2010년에도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유전 매입 및 M&A, 기존 생산광구 증산 등을 적극 추진

2. 해외유전개발 투자 51.8억불 기록

- '09년 세계경제침체로 인한 해외 메이저 석유회사의 투자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외유전 개발투자는 전년대비 32% 증가한 51.8억불에 달함

연도별 해외유전개발 투자금액



* 해외유전개발 투자실적(억불)

'05	'06	'07	'08	'09
9.5	19.0	25.5	39.3	51.8

○ 단계별로는 생산(4,434백만불) > 탐사(597백만불) > 개발(154백만불) 순

- 캐나다 Harvest Energy사, 페루 Savia Peru, 카자흐 Sumbe 등 생산단계 투자의 대폭 확대로 자주개발 물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석유공사 대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
- 탐사단계와 개발단계는 세계경기침체를 반영하여 감소

* 정부는 리스크가 높은 탐사사업에 대하여 성공률 응자자금('09년 2,690억원)을 지원하여 기업의 탐사활동 지원

(단위 : 백만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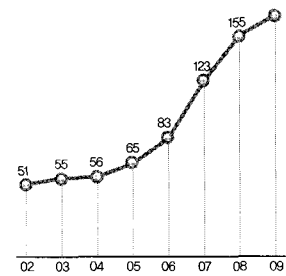
단 계	'07년		'08년		'09년	
탐 사	543	(21%)	897	(23%)	597	(11%)
개 발	687	(27%)	330	(8%)	154	(3%)
생 산	1,277	(50%)	2,669	(68%)	4,434	(86%)
총 계	2,549		3,930		5,185	

* () 안은 총투자자中 비중

3. 유전개발사업 참여 현황

- '09년 신규 자원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30개의 신규 원유·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총 37개국 169개 사업을 진행중

연도별 해외유전개발 진행사업수



'09년 주요 신규 사업 현황

단 계	주요 사업
탐사(1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콜롬비아) CPO2·CPO3(석유공사) -방글라데시) 7(GS칼텍스) -터키) North Thrace(서울도시가스) -적도기니) S(SK에너지) 등
개발·생산(1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이라크) 주바 이르 생산광구 (가스공사) -캐나다) Harvest Energy 생산광구 (석유공사) -미국) Sterling Energy사(에이티엠 파트너스) 등